

손보산업의 위험관리 기능의 재조명



李大鎔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1986년이 저물고 1987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나간 1986년은 우리나라 국제 무역수지가 흑자 원년을 기록하는 경제적 대경사가 있는 해였으나 우리 손해보험계 위험관리 입장에서는 한가지의 경사와 다른 한가지의 곱고려운 일이 더불어 일어난 해였습니다.

1986년 4월 12일,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에 3만 여평의 대지 위에 연건평 천여평의 방재시험소를 건립하여 개소식을 갖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방재 시험소는 앞으로 계속적인 시설 확충과 기술 축적으로 국제 방재 선진 기관인 미국의 UL 또는 FM, 영국의 FRS 혹은 FIRTO, 서독의 VdS와 대등한 위험관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나라 국민민복과 손해보험산업 보호 및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사가 있는 반면 작년 7월 31일, 우리 화재보험시장이 미국에게 완전 개방됨으로써 미국 2개 손해보험지사가 한국 화재보험물에 참여할 때 우리 화재보험물 수입보험료를 이들 2개 지사에게도 한국 손보사와 똑같이 균등 배분하게끔 배분율이 불합리하게 잘못 처리되었습니다.

한국 손해보험시장 점유율이 2%미만에 불과한 미국 2개 손보 지사가 한국 손보사와 균등하게 배분 받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 불합리성을 지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급기야 이럴바에는 우리 화보물을 완전 해체해 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시비로 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화보물이 해체되면 위험관리 재원이 고갈되며, 그 고갈 부분을 손보사들이 추가 염출하는 문제와, 한국화재보험협회 직원의 대대적인 인

원 감축을 충격적으로 해야 하는 사회소요의 문제가 일어나며, 위험관리 기능의 위축 내지는 반신불수의 결정적 후퇴가 야기될 우려마저 있는 것입니다.

화재보험물의 배분 문제가 불합리하게 잘못 되었다고 해서 화재보험물을 일시에 전면 해체한다는 것은, 마치 우유 배분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소를 죽이겠다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즉 배분 문제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1987년은 우리나라 국제 무역수지 흑자 2년에 해당하는 경제발전의 의욕적인 밝은 해입니다. 흑자 시대가 밝게 계속되면 대형 공장과 고층건물의 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 국가 재산의 위험관리를 소홀히 하면 한 건의 대형화재로 단숨에 수백명, 수천명의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며 막대한 국가 재산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흑자 시대의 위험관리의 긴요성은 더욱 더 강조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정책강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위험관리 정책수립에 관여하시는 정부관계관 여러분들, 그리고 위험관리에 직접 종사하고 계시는 손보사장단 여러분들과 이를 학술적으로 뒷받침해 주시는 학계 여러분들, 그리고 이 기능을 직접 몸으로 사명, 수행하고 있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임직원 여러분들은 더 한층 위험관리를 위한 열과 성의를 다 하시어, 국민민복과 손보산업의 백년대계에 차질이 없는 새해의 위험관리 설계를 하시기를 간곡히 기구 드립니다.

1987년 정월 초하루 새아침

李大鎔 謹啓